

박현일의 색채 인문학 244 회색과 기업

“회색을 좋아하는 사람들, 모든 일에 늘 신중하고 진지”

●색채와 자동차

2004년 6월 22일 한국일보에 「호황엔 흰색, 불황엔 흰색 잘팔려」라는 기사는 자동차 색깔에 대한 재미있는 정보가 숨어 있다. 이 기사에는 경기 상황에 따라 ‘잘 나가는’ 색깔이 다르고, 나라별로 가장 많이 팔리는 색깔이 따로 있다.

2004년 수입차 업계에서는 민족마다, 나라마다 선호하는 차 색상이 다르다고 했다. 특히 성실과 절제함으로 대변되는 독일 국민은 은색을 좋아한다.

2004년 BMW는 나라 별로 자동차 색상 선호도를 조사하였는데, 독일에서는 은색 차량이 인기가 높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튀기를 싫어하고, 절제된 이미지를 선호하는 민족적인 성향으로 인해 하얀색과 진주색 그리고 은색 또는 검은색을 좋아한다.

2004년 대우자동차는 색상별 장단점을 구별하였다. 하얀색과 은색의 장단점으로, 과시욕이 있는 사람은 하얀색 차를 사라. 차체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게으른 사람은 하얀색이나 은색 차를 사라. 흡입이 잘 보이지 않고, 세차 등의 차량 관리에도 편리하며, 여름에는 검은색 계통의 차량보다 시원하기 때문이다.

2013년 미국의 중고차 전문 사이트 아이씨카닷컴(iSeeCars.com)은 남성과 여성의 자동차 색상에 대해 취향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3,000만 대



차를 담당하는 판매원에게 연락하여 고객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1년간 이루어졌다. 그 결과 검은색과 하얀색 자동차는 남녀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색상으로 나타났다. 여성에게는 은색, 베이지색과 함께 금색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의 색상 선호도는 남녀가 다르게 나타났다.

●색채와 성격

회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늘 신중하고, 진지하다. 이들은 균형을 유지하므로 분별 있는 성격과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 그들은 쓸데없는 일을 과감히 뿌리치는 성격으로, 뛰어난 경영능력을 발휘하지만 과로하기 쉽다.

회색 중에서 밝은 회색인 ‘실버 그레이’나 ‘라이트 그레이(light gray)’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회적이고 멋스러우며, 매우 섬세한 경향이 있

다. 진한 회색인 ‘목탄 빛 회색’이나 ‘스트레이트 그레이(straight gray)’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정 지향적이고 멋쟁이 기질이 있다. 이 색은 경영자가 좋아하는 색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제약(制約)이나 장애가 많은 경영 세계에서 온화하고 기본을 좋게 하는 진한 그레이가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의외로 신뢰할 수 있는 인품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에게나 친구로 적격이다.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 손을 내밀기보다 자기한테 기대오는 편을 좋아하고, 세상일에 주목받고 싶어 하므로 사법관이나 변호사가 어울린다.

회색은 여러 가지 색을 돋보이게 하는데 뛰어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융화와 조화를 통해 외부의 힘을 받아들인다. 특히 회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은색이 가진 성질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사소한 일로 흥분하지 않고, 항상 온화한 생활을 하고 싶어 하며, 인생의 장애물을 피해 가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 색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아하며, 젊은 사람보다도 나이 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문화예술 기획자/철학박사·미학전공

기고 김철호 광주야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1팀장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 만들자



또다시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바로 출생아 수 통계다.

통계청이 지난 3월27일 발표한 ‘2024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월 출생아 수는 2만144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88명(-7.7%) 줄었다. 15개월 연속 감소세다.

시도별로 보면 대전과 충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줄었다. 4·10 총선과 맞물려 정치권에서는 앞다퉀 저출생 대책을 내놓았다. 국민의 힘이 내놓은 3자녀 이상 가구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17세까지 월 20만원 아동수당 지급과 같은 현금성 공약들은 저출생 문제 본질을 벗어나 포퓰리즘 공약에 급급할 뿐이다.

일각에서는 태어난 아동만이라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사회에서 필요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아동 안전 관련 법과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10주기를 맞는 세월호 피해 학생들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4월16일을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했으며 안전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예방활동이나 대응체계도 보완했다.

국무총리 직속 국민안전처를 설치했고(2017년 폐지)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재난현장 지휘권은 소방서장에, 긴급구조 활동 종료 후 시·군·구 부단체장이 재난현장 수습상황 총괄 및 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 차원에서 유치원 생부터 초·중·고생들에게 학기당 5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2022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 통계 현황에서는 아동학대에 의한 사망아동이 50명(전국)으로 집계됐다. 이 중 치명적 신체학대에 의한 학대로 17명,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 관련 피해아동 14명, 신생아 살해 5명, 치명적인 방임, 즉 보호자의 감독소홀 및 기본 욕구 박탈에 의한 사망도 12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도 아동들의 안전망을 구축해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시도에 나섰다.

첫째 광주시교육청과 자치구 아동보호팀, 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경찰청이 협업해 미취학·장기결석 학생 중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아동과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들을 전수 조사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시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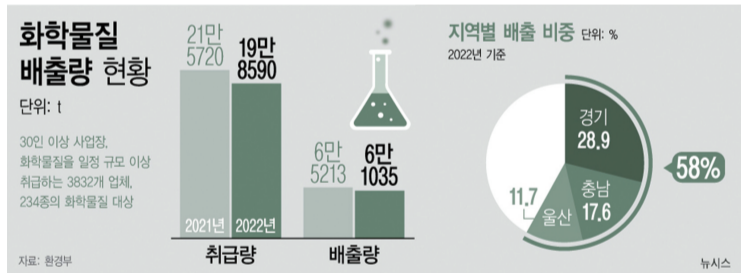
둘째 12월까지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5개 자치구 중 북구에서 먼저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 판단 전, 예방적 접근이 필요한 가정을 선정하고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위한 서비스 비용 지원과 보호자에 대해서는 양육코칭,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부모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아동학대 발생 후 개입하는 사후 대처가 아닌 보다 선제적으로 잠재적 학대피해아동을 조기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앞으로는 학대 발생 후 개입과 학대 발생 전 예방적 차원 조기에 대응 투트랙으로 개입한다는 새로운 지향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시범사업에서 효과성이 검증된다면 모든 자치구가 시행하는 것으로 확대될 예정인데 그럴 경우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 5개 자치구 아동보호팀의 적정 인력,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등 대안 마련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한다.

소중한 어린 생명의 안전뿐 아니라 아동 행복지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한 시스템 점검이야말로 세월호 참사로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사망한 학생과 피해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와 함께 하세요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고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